

기획재정부 <small>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REPUBLIC OF KOREA</small>	보도자료		
	보도일시	2008.4.25(금) 11:00부터	
배포일시	2008. 4. 25(금) 09:00	담당부서	재정정책국 재정정책과
담당과장	조용만(2150-5310)	담당자	정향우 서기관(2150-5311)

제목 : 선진 일류국가 건설을 위한 향후 5년간의 재정전략 논의
- 2008년도 국무위원 재정전략회의 개최 -

□ 정부는 4월 27일, 이명박 정부의 재정운용방향과 내년도 예산 편성을 위한 분야별 지출한도를 논의하기 위해 국무위원 재정전략 회의를 개최할 계획임

- 국무위원 재정전략회의는 모든 국무위원이 한자리에 모여 향후 5년간의 재정운용에 대한 기본방향 및 자원배분전략에 대하여 논의하는 회의임
- 금번 회의가 이명박 정부의 첫 번째 재정전략회의이므로 철학을 공유하고 향후 5년간 국정과제 실천을 위한 구체적인 재정운용 방향 수립에 주안점을 둘 예정임

□ 이번 회의에서 논의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

- ① 선진 일류국가 건설을 위한 재정운용 방향과 추진전략
- ② '08~'12 나라 살림살이 규모·수지 및 분야별 자원배분방향
- ③ 경제활성화를 위한 감세방안
- ④ 예산효율 10% 제고방안
- ⑤ 해외자원개발,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등 10여개 재정 관련 주요 이슈 등

□ 이번 회의가 지난 정부의 국무위원 재원배분회의와 다른 점을 말씀 드리다면

- ① 회의 명칭을 종전 『국무위원 재원배분회의』에서 금년에는 『국무위원 재정전략회의』로 변경하였음
 - 이는 종전의 국무위원 재원배분회의가 재원배분의 문제에 중점을 두어 논의를 하였다고 한다면
 - 앞으로는 재원배분 문제 뿐만 아니라 재정운용의 전략에 대해 보다 중점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임
- ② 논의대상을 확대하여 종전에는 세출예산의 배분 중심이었으나 금년에는 세출, 조세제도, 집행관리 등 재정의 전과정에 걸쳐 논의를 하게 됨
 - 이는 세출, 조세제도, 집행관리 등을 모두 보아야 재정 전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임
- ③ 회의 진행도 종전에는 재정당국이 주도하여 발표하고 논의를 진행한 반면, 금년에는 재정효율 10% 향상분야에 대해서는 각 부처가 주도적으로 발표하도록 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토의가 되도록 하였음
 - 특히 공사비 절감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와 조달청의 구체적인 공사비 절감방안 발표는 전 부처로 공사비 절감방식이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됨

- 정부는 금번 재정전략회의를 토대로 '08~'12 국가재정운용계획(시안)을 마련하고 '09년도 부처별 지출한도를 통보할 예정임(4월말)
- 각 부처의 예산요구(6월) 내용을 검토하여 '08~'12국가재정운용계획 및 '09정부예산안을 확정하여 국회에 제출(10월)

< '08~'12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일정 >

-
- ▶ '08.4월말 재정전략회의 결과를 반영,
'09년 예산편성 지침 및 지출한도 통보
-
- ▶ '08.5~6월 각 부처는 지출한도 내에서 '09예산 요구안 자율 편성
-
- ▶ '08.6월말 각 부처는 기획재정부에 '09예산 요구안 제출
-
- ▶ '08.7~9월 각 부처의 예산 요구안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협의·보완
⇒ '09정부예산안 및 '08~'12 국가재정운용계획 확정
-
- ▶ '08.10.2 '09정부예산안 및 '08~'12 국가재정운용계획 국회 제출
-

기획재정부 대변인

모든 국무위원이 한 자리에 모여 부처간 벽을 허물고
국가발전전략에 입각하여 재원투입 우선순위를 논의하는 행사

① 개최 의의

- ① 이명박 정부의 철학과 국정과제를 뒷받침하는 재정운용전략 마련
 - * 『감세와 효율』, 7% 성장능력을 뒷받침 하기 위한 재정운용의 틀 마련
- ② 분야별·부처별 지출한도에 대한 합의 도출
 - * 차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성장률, 재정수지, 국가채무 등 총량지표 논의 및 세입·세출의 규모 설정
- ③ '08~'12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정부내 공감대 형성

② 회의의 특징

- ① 배석자 없이 국무위원들간의 기탄없는 토론을 통해 부처 이기주의를 벗고 국가재정운용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합의 도출
- ②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주말 또는 공휴일 이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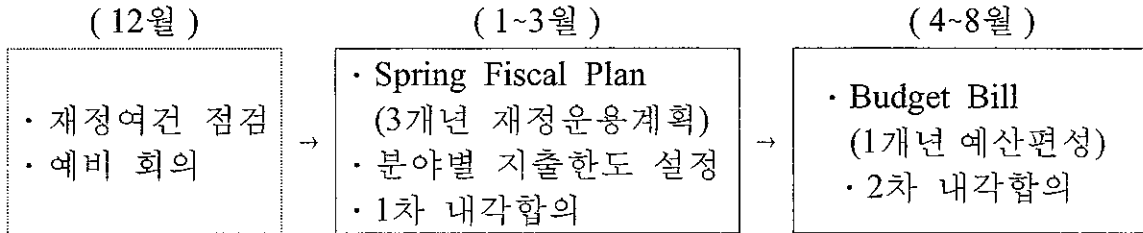
③ 그 동안의 회의 개최 경과

○ Top-down 제도 도입을 계기로 '04년 도입 ⇨ 현재까지 4차례 개최

- ▶ '04~'08 국가재정운용계획(안) : '04.6.19
- ▶ '05~'09 국가재정운용계획(안) : '05.4.30~5.1 (이틀간)
- ▶ '06~'10 국가재정운용계획(안) : '06.4.22~23 (이틀간)
- ▶ '07~'11 국가재정운용계획(안) : '07.4.14

□ 스웨덴

- 3개년에 걸친 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고
내각 합의를 통하여 분야별 지출한도를 사전 설정



- 내각 합의 방식

- 주말을 활용하여 수상별장에서 합숙, 자원배분 안전에 전념
- 「지출총액 → 분야별 한도 → 부처별 한도」順으로 3단계 합의,
총액內에서 각료간 제로-섬 형태로 경쟁

□ 네덜란드

- 집권 정당간 합의서(Coalition Agreement)를 작성하여 5개년
재정운용계획을 제시하고 그 틀 내에서 매년도 예산을 편성
- 내각회의를 통하여 분야별 · 부처별 지출한도를 사전 설정,
4·7·8월 등 3차례 개최 (각각 1일간)

□ 영국

- 3개년 재정운용계획(Spending Review)을 매 2년마다 수립
- 내각 합의방식 없이 재정당국이 지출한도를 결정,
이의 제기시 PSX를 구성
(Public Service Expenditure Committee, 위원장 : 재무부 장관)